

금주에는 보험보다는 증권업종에 관심이 필요함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9F)	PER (2019F)	ROE (2019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76	1,271,264	0.8	9.4	9.6	3.2	1.1	-2.5	-9.0	1.7	-47	865	185	1,737	7,573
KOSDAQ	686	127,648	2.1	15.4	15.4	3.3	3.8	-3.0	-14.7	1.6	-150	-28	6	466	2,021
보험	16,182	19,459	0.5	10.1	5.6	-0.0	-1.1	-6.2	-8.6	-0.7	-58	43	-11	24	108
증권	1,675	18,052	0.7	8.6	8.5	3.6	-2.4	2.6	-8.8	-0.0	22	-1	13	23	92
삼성생명	82,600	16,520	0.5	9.6	5.3	1.3	0.4	-9.1	-14.6	1.2	-2	3	5	2	11
한화생명	4,215	3,661	0.3	7.0	5.1	1.6	0.0	-12.1	-18.6	-0.1	-2	0	2	1	3
동양생명	4,880	787	0.3	10.2	3.2	5.2	-7.8	-18.7	-33.6	2.3	-1	1	0	0	2
삼성화재	267,000	12,649	1.0	13.3	7.5	-1.8	-2.7	-3.8	0.2	-0.7	-25	21	-9	11	27
DB손해보험	67,200	4,758	0.8	6.7	12.6	-5.0	-3.4	-3.6	10.3	-4.5	-21	11	-4	4	27
현대해상	37,800	3,379	0.8	6.3	13.6	-5.3	-6.0	-5.0	9.6	-7.9	-19	10	-9	2	23
메리츠화재	22,350	2,541	1.1	7.7	15.3	3.0	4.0	19.2	16.7	2.3	7	-3	4	2	8
한화손해보험	5,760	672	0.5	4.6	11.6	-0.9	7.1	-7.2	-11.1	-2.5	0	0	-0	0	0
삼성증권	31,200	2,786	0.6	9.0	6.5	1.5	-1.0	9.5	-5.2	-1.0	2	-1	1	3	25
미래에셋대우	6,710	4,417	0.5	9.8	5.7	4.8	-0.3	-5.6	-18.0	2.8	7	1	6	7	25
NH투자증권	12,700	3,574	0.7	10.3	7.1	4.1	-7.0	5.0	-7.3	-2.7	6	-4	5	3	14
한국금융지주	59,500	3,316	0.7	6.3	11.9	4.4	-6.3	-4.2	-22.9	0.0	1	-2	3	2	7
키움증권	77,600	1,715	0.9	8.6	10.4	3.7	-1.3	4.9	-22.0	-0.8	1	1	-1	1	5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약세를 시현하였음. 미국 정부 섀다운 Risk는 존재하였지만 파월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신용국 환율 하락, 경기 민감주의 반등 등 주식시장이 강세를 시현하였기 때문에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과 동시에 장기채권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완화로 인식하고 있음. 그간 낙폭이 컸던 생명보험업의 경우 금리 반등과 같이 저점에서 소폭 반등을 시현하였음</p> <p>▶보험료 인상: 연초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조정이 예정되어 있음. 우선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1월 중순~말까지 책임개시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3.0~4.4%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실손보험의 경우 표준화(2009년 10월)이후 상품의 경우 1월 1일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며 2위권 손해보험사는 인상, 삼성화재는 인하를 결정하였음.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경험생명표의 공식적인 변경은 4월이지만 보험사별로는 선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경험생명표 및 경험위험률 조정으로 사망 보험료는 인하, 암관련 보험료는 인하될 예정임</p>
----	--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약세를 보이던 증권업종이 전주에 반등하였음. 파월의장의 발언 및 미중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업종 또한 반응하였다고 생각함. 전주 거래대금은 8.6조원으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2,000pt 수준(일부 회복하였지만)에서 반등이 나오며 하방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됨</p> <p>▶한국투자증권 제재 심의 연기: 한국투자증권의 TRS 방식으로 SPC에 대출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론 발표를 가시 연기하였음. 개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에 대출하였지만 금융당국은 최정 대출자가 개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투는 SPC라는 입장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p>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누계		4Q17	1Q18	2Q18	3Q18	4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8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6	-25.0	8.8	10.8	9.6	8.4	8.5	8.6	1.2	13.8	13.9	9.4	8.8	8.6	-2.8
KOSPI	5.1	-21.7	5.2	6.1	6.1	5.3	5.2	5.1	-2.8	7.0	8.1	5.6	5.6	5.1	-8.1
KOSDAQ	3.5	-29.3	3.5	4.7	3.5	3.1	3.2	3.5	7.7	6.8	5.8	3.8	3.3	3.5	6.1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4	0.4	11.3	11.8	9.3	9.6	9.4	9.4	0.4	11.3	11.8	11.8	9.4	9.4	0.4
KOSPI	4.7	-1.3	5.7	5.9	4.8	4.9	4.8	4.7	-1.3	5.4	6.0	5.9	4.8	4.7	-1.3
KOSDAQ	4.7	2.2	5.6	5.9	4.5	4.7	4.6	4.7	2.2	5.9	5.8	5.9	4.6	4.7	2.2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4	-0.4	1.73	1.85	1.80	1.81	1.75	1.74	-1.0	1.89	1.85	1.85	1.75	1.74	-1.0
3년	1.80	0.4	1.91	2.00	1.94	1.90	1.82	1.80	-2.1	2.22	2.12	2.00	1.82	1.80	-2.1
5년	1.88	0.0	2.10	2.18	2.08	1.98	1.89	1.88	-1.7	2.43	2.35	2.18	1.89	1.88	-1.7
10년	2.00	4.5	2.31	2.36	2.25	2.11	1.96	2.00	3.9	2.62	2.56	2.36	1.96	2.00	3.9
약정 MS	%	18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7	-0.4	6.0	6.0	5.6	5.6	5.5	5.7	0.2	6.2	6.2	6.0	5.6	5.7	0.1
미래에셋대우	12.3	-0.4	12.2	12.3	12.0	12.0	12.3	12.5	0.2	13.3	12.8	12.3	12.0	12.5	0.4
NH투자증권	6.2	-0.3	6.9	6.5	7.3	6.3	6.6	6.3	-0.3	6.3	6.4	6.6	6.7	6.3	-0.4
한국금융지주	5.0	-0.4	5.4	5.6	5.4	5.4	5.4	5.4	-0.0	5.7	5.3	5.4	5.4	5.4	-0.0
키움증권	18.3	0.8	17.4	17.4	15.9	16.5	16.8	18.0	1.2	17.5	18.2	17.2	16.4	18.0	1.6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시장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4분기 부진한 실적과 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주 보험업종이 약세를 시현하였지만 미중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월말 류현 부총리의 미국 방문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반등기조 지속보다는 혼조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 단기적으로 보험업종의 상승 모멘텀이 될 이슈는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보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과 장기채권 금리가 저점 이후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방경직성은 전주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고 판단됨 보험사들의 실적발표는 2월 중/하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은 보험료 인상관련 보도 및 금리의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증권업종은 반등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탄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후 신용국(중국포함) 환율이 하락하면서 EM 펀드로의 자금 유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시장의 반등과 증권업종의 상승이 이루어졌음. 하지만 미국 정부의 섀다운의 빠른 해결이 금주 중에 가시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미중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주에 주가 상승에 기여하였지만 금주 추가적인 가능성 확인이 없다면 소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신용국 환율 또한 전주 일정부분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주에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주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아직 시장 변수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증권주에 대한 생각은 1분기 선별적 종목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우선 1) Valuation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2) 1분기에는 QoQ의 이익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과거에도 4분기 대비 1분기 실적은 대부분 개선되었음. 가장 큰 이유는 Trading 손익을 회계적으로 나눌때 가장 큰 부분이 이자수익과 배당 및 분배금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에서의 배당 및 분배금 수익이 반영되기 때문임. 또한 4분기 실적 약화의 원인이 보유중인 주식관련 자산의 평가손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손실이 4분기대비 축소된다면 이는 QoQ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월 14일	중국	중국 무역수지(USD) (12월)	44.71B	51.53B
1월 15일	영국	브렉시트 딜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		
1월 15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MoM) (12월)	0.1%	-0.1%
1월 16일	미국	미국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6.270M	
1월 16일	미국	근원 소매판매 (MoM) (12월)	0.2%	0.1%
1월 17일	중국	중국 GDP (YoY) (4분기)	6.5%	6.4%
1월 18일	미국	신규 주택판매	544K	569K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네이버, 증권사 인수 추진...韓핀테크 판 커진다 (서울경제) 네이버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정부가 연내 추가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증권업까지 포함해 국내 핀테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임</p> <p>▶부동산 경기 하락국면, 증권사 간 부동산금융 변별력 극대화 될 듯 (건설경제) 부동산 경기 하락국면으로, 증권사 역량에 따라 부동산금융 실적은 증권사 별로 극도로 엇갈릴 것임</p> <p>▶보험사, 환 헤지 부담에도 해외채권 투자 '꿈틀' (연합인포맥스) 환 헤지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p> <p>▶토스, 실속형 미니보험 상품 출시... 보험업계 '카뎀' 될까 (국민일보)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니보험 판매를 시작했음</p> <p>▶네이버 "증권사 인수 계획없다" 공식 부인 (머니투데이)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측은 7일 "증권사 인수와 관련된 모 매체의 단독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증권사 인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p> <p>▶2019년 증권사 '우발채무' 주목...대형사도 급증 (인베스트조선)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19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주목할 이슈로 꼽히고 있음</p> <p>▶웅진씽크빅, 유상증자 발행가 반토막...코웨이 인수부담 증가 (인베스트조선) 웅진씽크빅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려 했던 인수자금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자금 부담이 최초 계획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p> <p>▶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철회?'...금감원에 쏠리는 '여의도 시선들' (뉴스핌) 금감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할것임.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됨</p> <p>▶4월부터 구(舊)실손보험료 인상...당국-보험사 줄다리기에 예고 (서울파이낸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를 인상할것임.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출시)과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9월 출시), 신실손보험(2017년 4월 출시) 3가지로 나뉨. 표준화 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은 이미 이달부터 변동된 보험료가 반영 됐음</p> <p>▶DB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3.5% 인상...오는 16일부터 (아시아경제)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한다고 9일 공시했음. 이번 보험료 인상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함..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각각 3.5%, 0.8% 올릴 것임</p> <p>▶'예보로 부담 1兆 눈앞'..속급이는 생명보험업계 (이데일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24개 생명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작년 1년 치 예금 보험료(특별 기여금 포함) 등을 납부할 예정임</p> <p>▶교보생명 IPO, 공동주관사로 'JP모간·씨티·미래대우' 낙점 (더벨)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JP모간,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미래에셋대우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했음</p> <p>▶[단독] '도수치로' 실손보험 약용...필라테스 끼워팔며 '보험 사기' (뉴스핌)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경영외과(통증의학과)가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한 보험사기 및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음. 거액의 도수치로 패키지를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임</p> <p>▶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일부 추가지급 (파이낸셜뉴스) 10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요구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사례와 관련해 지급 여부를 현재 진행하고 있음. 삼성생명에 따르면 사례 별로 검토를 진행, 보험금 지급유무를 일부 계약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p> <p>▶2년 만에 3%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다음 주부터 1인당 평균 2만 원 인상 (한국금융) 다음 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순차적으로 줄줄이 인상될것임. 다음주 수요일인 16일에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가장 먼저 인상에 나설 것임</p> <p>▶연초부터 오른 실손보험료 4월 중에 또 인상될 듯 (메디컬투데이) 실손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될 수도 있음. 연초부터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가 오른 가운데 오는 4월 중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도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임</p> <p>▶문재인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주름 깊어지는 보험사 (MoneyS)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약으로 추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임</p> <p>▶교보증권 매각 철회...상장으로 자본 확충 올린 나선 교보생명 (뉴스웨이) 국내 생명보험업계 3위사 교보생명이 교보증권 매각 계획을 접고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 집중할 것임</p>
----	--

7. Global Peers

		현재가	Mkt. Cap.	PBR	PER	ROE	ROA	Performance (%)				
		(Local)	(USD bn)	(FY19F)	(FY19F)	(FY19F)	(FY19F)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76		0.8	9.1	8.1	6.2	3.2	0.3	-4.0	-10.2	1.7
	보험	16,182		0.6	8.6	5.7	0.5	-0.0	-2.9	-5.5	-8.1	-0.7
	삼성생명	82,600	14.8	0.5	10.4	4.5	0.5	1.3	-1.3	-8.5	-14.5	1.2
	한화생명	4,215	3.3	0.3	7.3	5.4	0.3	1.6	-0.9	-11.2	-17.4	-0.1
	동양생명	4,880	0.7	0.3	6.7	5.2	0.4	5.2	-9.1	-20.0	-33.6	2.3
	삼성화재	267,000	11.3	0.9	10.5	9.5	1.4	-1.8	-1.7	-1.8	0.9	-0.7
	DB손해보험	67,200	4.3	0.9	7.0	13.2	1.5	-5.0	-5.4	-4.5	10.0	-4.5
	현대해상	37,800	3.0	0.8	6.5	14.1	1.2	-5.3	-7.2	-3.1	10.5	-7.9
	메리츠화재	22,350	2.3	1.2	8.5	14.6	1.4	3.0	3.5	20.8	16.4	2.3
	한화손해보험	5,760	0.6	0.5	4.9	10.4	0.8	-0.9	5.5	-8.4	-11.8	-2.5
	증권	1,675		0.5	6.5	8.0	0.7	3.6	-4.8	1.4	-10.6	-0.0
	삼성증권	31,200	2.5	0.6	9.6	6.0	0.9	1.5	-3.7	10.1	-5.3	-1.0
	미래에셋대우	6,710	4.0	0.5	9.1	5.8	0.5	4.8	-3.3	-6.3	-17.4	2.8
	NH투자증권	12,700	3.2	0.7	8.8	8.1	0.8	4.1	-8.0	2.8	-7.0	-2.7
	한국금융지주	59,500	3.0	0.7	6.0	11.9	0.9	4.4	-8.5	-6.2	-22.5	0.0
	키움증권	77,600	1.5	0.8	7.1	11.5	1.6	3.7	-4.8	2.2	-22.2	-0.8
일본	Nikkei225	20,360		1.5	14.6	10.4	2.0	4.1	-4.7	-10.3	-9.9	1.7
	보험	924		0.7	10.0	6.8	0.8	2.5	-4.0	-14.0	-7.7	1.0
	Dai-ichi Life Holdings	3,632	23.8	2.0	40.6	5.3	3.4	3.4	-12.2	-18.7	-16.5	3.4
	Japan Post Insurance	2,625	14.5	0.8	15.3	5.3	0.2	4.2	-2.6	-1.9	15.2	3.1
	Tokio Marine Holdings	5,185	34.4	1.0	11.3	8.3	1.6	-0.6	-3.9	-3.5	-0.6	-1.0
	증권	327		0.7	11.2	4.3	0.2	3.7	-4.9	-18.0	-16.8	3.8
	Nomura Holdings	438	14.1	0.5	12.7	3.5	0.2	3.5	-4.9	-18.6	-17.8	4.1
	Daiwa Securities	584	9.2	0.7	10.2	7.2	0.5	3.5	-4.9	-12.3	-10.5	4.9
	SBI Holdings	2,222	4.8	1.1	8.5	13.3	1.4	4.8	-14.5	-30.1	-17.3	2.9
	Hang Seng	26,667		1.1	10.1	12.6	1.2	4.1	2.2	3.4	-6.5	3.2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674		1.1	9.4	11.9	1.1	1.6	-1.5	-2.0	-9.8	2.4
	보험	125		1.0	9.0	11.5	1.8	1.8	-5.8	-8.4	-13.9	-1.0
	China Life	17	79.5	1.2	11.3	11.1	1.2	6.2	6.0	1.8	-11.9	4.7
	Ping An Insurance	70	159.1	1.7	9.1	20.5	1.6	3.6	-6.5	-5.6	-2.0	0.6
	AIA	67	103.7	2.2	16.3	14.1	2.4	6.1	5.2	6.9	-1.4	3.5
	증권	97		1.2	20.1	5.8	1.5	1.3	8.2	30.6	4.9	12.2
	CITIC Securities	15	29.0	0.9	12.5	7.8	1.8	6.5	1.9	21.7	-4.7	9.0
	Haitong Securities	8	15.0	0.6	10.5	6.0	1.3	6.8	0.7	24.6	5.6	10.7
	Huatai Securities	13	20.1	0.9	11.6	7.2	1.9	4.5	3.7	23.9	10.4	7.7
	S&P500	2,596		2.8	15.3	16.3	3.6	2.5	-0.1	-6.2	-7.3	3.6
미국	보험	358		1.2	10.3	11.4	#N/A	2.1	2.8	-3.8	-5.3	2.6
	AIG	42	36.9	0.6	8.8	7.4	0.8	3.7	10.6	-16.3	-23.3	5.7
	Metlife	44	43.1	0.9	8.0	11.1	0.7	3.4	10.5	-0.3	-1.1	6.5
	Prudential Financial	88	36.2	0.7	6.9	11.7	0.6	3.2	5.9	-10.2	-7.9	7.6
	증권	173		1.7	12.3	13.0	1.3	0.8	1.4	-7.3	-14.7	2.4
	JP Morgan	100	332.2	1.3	10.0	13.7	1.3	-0.8	-1.1	-6.6	-6.5	2.3
	Goldman Sachs	177	68.4	0.8	7.3	11.6	1.0	1.1	0.1	-17.3	-22.1	5.9
	Charles Schwab	44	59.2	2.7	15.6	19.3	1.5	3.3	4.6	-10.6	-13.7	5.5
	MSCI Europe	118		1.5	12.4	10.7	1.0	1.5	0.4	-2.7	-9.2	3.3
	보험	71		1.0	9.3	13.0	0.6	2.3	2.7	-2.5	-2.9	3.3
유럽	Allianz	179	87.2	1.1	9.3	12.3	0.9	0.9	1.5	-1.2	-0.1	2.2
	AXA	20	54.5	0.7	7.1	9.3	0.7	1.7	1.0	-13.0	-5.7	3.7
	Prudential plc	1,447	48.3	2.0	8.9	21.6	0.7	4.6	0.9	-8.9	-16.1	3.2
	Munich Re	192	32.9	1.0	10.4	9.7	1.2	0.3	2.1	4.9	2.3	0.5
	증권	60		0.9	10.7	7.7	0.4	5.6	2.5	-8.9	-16.3	5.6
	UBS	13	50.8	0.9	8.9	9.6	0.6	2.6	4.3	-7.6	-12.1	6.5
	Credit Suisse	12	30.3	0.7	7.7	8.4	0.5	4.8	3.2	-13.0	-21.3	8.0
	Deutsche Bank	7	17.7	0.2	9.7	2.1	0.1	0.3	-5.2	-20.6	-22.0	7.0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41	1,741	1,745	1,837	1,803	1,751	0.0	-0.4	-9.6	-6.2	-1.0
		3 Year	1.802	1,795	1,792	2,020	2,047	1,823	0.7	1.0	-21.8	-24.5	-2.1
		5 Year	1.875	1,865	1,880	2,200	2,292	1,892	1.0	-0.5	-32.5	-41.7	-1.7
		10 Year	1.995	1,967	1,983	2,365	2,507	1,956	2.8	1.2	-37.0	-51.2	3.9
일본	국고채	1 Year	-0.148	-0.169	-0.163	-0.140	-0.126	-0.146	2.1	1.5	-0.8	-2.2	-0.2
		10 Year	0.017	-0.038	0.050	0.146	0.043	0.003	5.5	-3.3	-12.9	-2.6	1.4
중국	국고채	1 Year	2.417	2,690	2,502	2,903	3,088	2,690	-27.3	-8.5	-48.6	-67.1	-27.3
		10 Year	3.120	3,138	3,303	3,590	3,515	3,310	-1.8	-18.3	-47.0	-39.5	-19.0
미국	국고채	1 Year	2.567	2,562	2,694	2,647	2,329	2,596	0.4	-12.7	-8.0	23.7	-3.0
		10 Year	2.701	2,668	2,879	3,150	2,849	2,684	3.3	-17.8	-44.9	-14.8	1.6
유럽	국고채	1 Year	-0.547	-0.561	-0.587	-0.596	-0.545	-0.603	1.4	4.0	4.9	-0.2	5.6
		10 Year	0.183	0.208	0.232	0.518	0.367	0.242	-2.5	-4.9	-33.5	-18.4	-5.9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판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90.9%	9.1%	